

주안에교회 창립 10주년 '선교 세미나' 연다

주안에교회(담임 최혁 목사)가 창립 10주년을 맞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서부아메리카 노회에 소속된 주안에교회는 2013년 5월 26일, 다우니에서 개척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성장을 계속해 왔다.

주안에교회는 포터랜지에 위치한 벨리체플과 부에나파크의 OC채플이 있으며, 양 채플에 등록되어 있는 성도 수는 1천6백여 명에 달한다.

최혁 목사는 "주안에교회를 세우신 분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분도 하나님"이라며 "하나님께서서 거룩하신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임을 주안에교회를 통해 나타내셨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 목사는 이어 "지난 10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며 "열 살을



주안에교회 벨리체플 전경

맞는 주안에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더욱 힘 있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주안에교회는 현재 30여 개국의 70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1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할 계획이다. 선교사 후원은 재정적 후원뿐 아니라, 기도 후원과 함께 선교지 방문 사역도 병행되고 있다.

한편 주안에교회는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오는 21일(금)부터 29일(토)까지 한국 교계

의 대표적인 선교사들을 강사로 선교 세미나를 개최한다.

선교 세미나에는 풀러신학대학 선교신학대학원 박기호 원로교수, 글로벌 선교 컨설턴트인 김 앤드류 선교사, 동서선교연구원개발원 엄경섭 대표 등이 주 강사로 나선다.

세미나는 21일(금) 저녁 7시 45분, 22일(토) 새벽예배(오전 6시) 및 오전 세미나(오전 7:30), 23일(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1시, 그리고 28일(금) 저녁 7시 45분, 29일(토) 새벽예배(오전 6시) 및 오전 세미나(오전 7:30)로 진행될 예정이다. 7월 30일(주일)에는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주안에 교회는 LA북서부 벨리지역 노스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소는 19514 Rinaldi Street, Northridge, CA 91326이다. 주일 예배에는 오전 8시와 11시이다. EM 예배(IC-CEM)는 오후 1시 30분이며, 교육부 예배는 0세부터 12학년까지 공동체 별로 주일 오전 11시에 드린다. 김민선 기자

캘리포니아 UMC 목사 "교단 탈퇴에 3백만 달러 들어"

캘리포니아 연합감리교회(UMC)의 한 목사가 동성애 논쟁으로 교단을 탈퇴하려는 자신의 교회가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불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옐렌지카운티 파운틴 벨리에 위치한 소형교회인 '더 파운틴'의 글렌 하위스 목사는 최근 LA에서 열린 UMC 캘리포니아-태평양 연회에 참석한 직후 이같은 발언을 했다.

하위스 목사는 지난달 교회 웹사이트에 자신과 테드 스미스 목사가 '교단 탈퇴 조건' 재고를 위해 연회 재단이사회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하위스 목사는 CP와의 인터뷰에서 "더 파운틴의 경우 3백만 달러가 넘는 비용이 탈퇴에 들어간다"라며 "다른 UMC 탈퇴 투쟁과 달리, 이것은 단지 동성애가 아닌 본질적으로 신학적인 문제"라고 했다.

그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와 성경적 권위를 부정하는 교파에 속할 수 없다"라고 했다. 하위스 목사는 "UMC 지도부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UMC법과 교리를 구성하는 교단의 장정을 무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러한 법률을 위반하는 주교들과 성직자들도 이를 외면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주요 이슈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John Wesley)가 교단 내의 신학적 표류를 막기 위해 제정한 '신뢰 조항'(trust clause)이다. 하위스 목사는 "이 조항은 UMC 지도자들이 소속 교회들을 잘못된 신학으로 끌어들여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UMC 교회가 역사적 가르침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교단이 과연 UMC는 신뢰할 만한가?"라고 반문했다.

C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태평양연회에 속한 22개 UMC 교회가 교단 탈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든 교회들은 하위스 목사가 언급한 대로 교회 재산 가치의 절반에 대한 '불합리하고 가혹한 요구' 때문에 교단 탈퇴를 요청하고 있다.

UMC가 재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더파운틴은 현재 건물을 떠나 교회를 위한 다른



옐렌지카운티에 위치한 '더 파운틴(The Fount)의 글렌 하위스 목사. ©유튜브 영상 캡처

장소를 찾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UMC는 최근 수십 년 동안 동성혼 축복과 비독신 동성애자에 대한 목사 안수를 허용하기 위해 장정을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지속해 왔다. 하위스 목사는 "더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이 교단을 떠남에 따라 UMC가 더욱 진보적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할 수 있을 때 나가지 않으면 공

식적으로 성경과 반대의 가르침을 제공하는 교단의 권위 아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엔뉴스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6천1백 개 이상의 교회가 UMC를 공식적으로 탈퇴했다. 특히 2022년에 1천8백 개 이상, 올해 현재까지 4천 개 이상이 탈퇴했다.

이미경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터우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링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2023년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말씀과 현상이 만나는 역동적인 교육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글로벌 교수진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미국연방인가기관 ATS 정회원" (2006년 취득)
 1천명 이상의 세계 각국 교회 지도자 및 목회자 배출, 신학적 깊이와 사역경험이 탁월한 한미 교수진

로스퍼디 교수, Ph.D. (영국스털링대학) 교회사
 멜빈릭스 교수, Ph.D. (풀러신학교) 조직신학
 프리실라이도요 교수, DMiss (풀러신학교) 터문화사역
 데이빗 맥킨리 교수, D.Min (트리니티신학교) 리더십 (버클리연합신학대학원) 실천신학
 한우리 교수, Ph.D. (버클리연합신학대학원) 실천신학

**온라인 수업 제공
 입학생 전원 장학 혜택**

2023년 가을학기 한국어 학위 과정 모집

■모집 학위과정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DICS 교차문화학 박사

■장학금
가을학기 전 입학자 25%, 목회자 30%, 선교사 40% 장학금 혜택

■제출서류
 1. 입학원서 2. 신앙 및 지원동기 진술서 3. 대학(원) 졸업증명서(영문)
 4. 성적증명서(영문) 5. 추천서(목회자 혹은 신학교 교수)
 *DICS(교차문화학 박사)의 경우 Writing Sample, Proposal Paper 추가
***입학서류 양식 및 문익는 이메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https://itsla.edu/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가을 학기 접수기간 **2023년 7월 17일 (월) - 8월 04일(금)**
 합격자 발표 **2023년 8월 8일 (화)**

■가을 학기 일정(10주)
 2023년 9월 5일(화) - 11월 13일(월)

■입학문의 www.itsla.edu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ITS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626) 653 9547 EXT.112 /admin.kor@itsla.edu

명예이사장 이영훈, Ph.D.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ITS신학대학원은 예수님을 모른채 방황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전 미국, 나아가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총장 이승현 (James Lee), Ph.D.
 1982년 개교한 ITS신학대학원은 탁월한 교수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으며 2006년 이래 미국의 유수한 연방인가 기관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의 정회원입니다. 미국 ITS가 제공하는 깊이있는 강의와 실질적인 훈련들을 한국어 온라인 과정을 통해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ITS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약속하는 "학생 후원자"로 귀하를 초대합니다.

당신은 신학생을 지원하여 모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적극적인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540 E. Vine Ave., West Covina, CA 91790
 626.653.9547 EXT. 112
 admin.kor@itsla.edu

만남의교회 창립 40주년 “주님의 지상명령 이뤄갈 것!”

만남의교회(이정현 목사)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기념주일예배를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성대히 드렸다.

‘40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이정현牧사는 “교회는 모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다. 교회를 다시 세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다”라며, “교회 예산은 세상을 의롭게 하는데 쓰여져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이 목사는 “세상에 어떤 이는 도전하는 정신, 실천하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써 돈을 끌어 당기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 한다”라면서, “교회는 회개를 통해서 세상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그 힘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레이트 커미션,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나의 능력,



만남의교회 창립 40주년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세상을 끌수 있는 힘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팬데믹 기간에 ‘선한 사마리아인 프

로젝트’를 통해 여러 교회와 우크라이나를 돕기에 힘썼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힘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기에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할수 있었다”라면서, “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불신자들에게 영생을 가르치고 모든 자를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리라 믿는다. 지난 40년 동안 축복하시고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상의 등대가 되어 이 일에 증인이 되는 만남의교회가 되기를 축복한다”면서 설교를 마쳤다.

이날 특별히 브라질의 강영수, 김선영 선교사의 단독 선교사 파송식이 있었으며, 16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교회는 창립 4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를 로비에서 진행하는 등 기념예배에 은혜를 더했다.

한편 만남의교회는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남 1·3·5·7·9캠페인”의 일환으로 매년 3대 절기(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의 헌금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있다.

토마스맹 기자

탈북민 2세를 통일의 주역으로 ‘스룹바벨 통일 비전캠프’ 열린다

2023년 7월 27일은 6.25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많은 이들이 가슴 아픈 역사를 잊고 여전히 극악한 북한 정권 아래 고통받는 동족의 울부짖음을 외면하고 있지만, 통일 한국의 꿈과 비전을 붙들고 탈북민 2세들을 스룹바벨과 다음 세대로 세우고자 하는 ‘스룹바벨 통일 비전캠프’가 7월 24일(월)부터 8월 3일(목)까지 나성산기도원에서 열린다.

이번 캠프는 GMCC 선교회(회장 현병훈 장로)에서 주최하고 총무이자 통일기도전사 모임 책임자 김학송 목사가 담당한다. 김학

송 목사는 지난 2018년 북한에 억류돼 있다. 폼페이오 당시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극적으로 함께 데리고 나온 한국계 미국인 3명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후 2021년 월드미선대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가장 암울한 때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후대들을 교육함으로써 자기 민족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 속담에 ‘일년지계는 곡식을 심고, 십년지계는 나무를 심고, 백년지계는 사람을 심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도 교육이고 망하게 하는 것도 교육입

니다. 우리 민족 통일을 위해 디아스포라의 다음 세대들, 특별히 탈북민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 통일 이후 평양의 성전을 재건하고 부흥을 일으키는 군사로 세워 나가는 비전에 중보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

캠프 일정은 1-3일 ‘주님과의 만남’- 산상수련회, 4-5일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발자취를 찾아서, ‘비전의 발걸음’- 스탠포드, 버클리, 구글, 애플 견학, ‘사명 선언문’ 작성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를 위한 선교 후원을 위한 통일 음악

회가 Mission Unity를 주제로 7월 30일(주일) 오후 7시 산돌교회에서 열린다.

후원 문의전화: 213-352-6253

김민선 기자

센터메디컬그룹 여성 목회자들 함께 건강 세미나 개최

센터메디컬그룹이 여성 목회자들과 함께 건강 세미나를 개최한다.

풀러튼 센터메디컬 클리닉의 초대 주치의 조이스 리 박사(가정의학과)는 오는 21일(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제자 교회(905 S Euclid st. #109 Fullerton CA 92832)에서 오렌지카운티 여성 목사회와 공동 주최로 20명의 시어니 여성들을 초대해 ‘시니어 여성의 골다공증’을 주제로 강연한다. 선착순 전화(714-800-3168) 접수로 2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이날 건강 세미나에는 10명의 여성 목회자들도 함께해 뜻 깊다. 조이스 리 박사에게 육체적인 의학 정보를 들음과 동시에 영적 지도자들인 여성 목회자들로부터 믿음의 세례를 받게 된다.

센터메디컬그룹은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담은 구디백을 선사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센터메디컬그룹의 9번째 건강 세미나로 그동안 총 970명이 참석해 1천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김민선 기자

노숙자 사역에 힘을 더해 사랑을 전하세요



IATIA CHERISH MISSION

IATIA Cherish Mission이 홈리스 노숙자 사역에 필요한 냉장고과 새롭게 지은 사역 창고 천정에 달 선풍기 현대(새것 350불), 예배에 오는 노숙자 교인들을 먹일 라면 등의 음식 후원자를 찾고 있다.

단체 관계자는 “매 주일 노숙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다운타운 중심가에서

주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큰 방송으로 평균 예배 참여자 80~00명과 수백, 아니 수천명의 사람들이 예배와 찬양과 말씀전파의 복음을 들으며 다운타운이 변하고 있다”며 사역에 대한 후원을 당부했다.

후원 문의: 818-335-9907

김민선 기자

디카시인협회 | 금주의 시



행복

숨을 깊게 들이 쉬고
불어 오는 바람에
강아지는 행복해 한다
인간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욕심 꾸러기이다
나도 같이 숨을
깊이 들어 마신다
순간 행복했다

-글: 사진: 마가렛 강-

주순영 선교사 미주성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요 4:10)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탈북 하여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있는 주순영 선교사가 미국 뉴욕과 LA를 방문하여 간증집회를 갖습니다. 신앙의 큰 도전을 전하여 줄 간증집회에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 뉴욕간증집회 일정

- 7월 14일(금) - 복음과영성교회(이태진목사)
- 7월 16일(일) - 빙 햄턴교회(김태수목사)
- 초코넛미국감리교회

☆ LA간증집회 일정

- 7월 21일(금) 오후 7:30 -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
- 7월 22일(토) 오전 6:20 -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 7월 23일(일) 오후 1시 - 오렌지힐교회(담임 백창호 목사)
- 7월 24일(금) - GBC미주복음방송 보이는 라디오 출연
- 7월 28일(금) 오후 8:30 - 올림픽 장로교회(담임 이수호 목사)
- 7월 29일(토) 오전 6시 -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
- 7월 30일(일) 오전 8시, 오전 11시 - 한마음제자교회(담임 광부환 목사)

문의 : 기독교일보 (213)739-0403, (213)434-1170



올림픽장로교회 이전, “나중 영광이 크리라”

올림픽장로교회(이수호 목사)가 성전 이전 감사예배를 16일 오후 4시에 드렸다.

이날 이수호牧사는 특별히 순서 중 성전 이전에 감사하며 합심기도를 인도하면서 소감을 전했다. 이 목사는 “원래 LA 지역을 벗어나려고 했었는데 6개 장소의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LA 지역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이곳을 품을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기도를 시작했다.

이수호 목사는 기도회 인도를 하면서 “LA 지역을 품으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다가 상처받고 지친 자들이 이곳에서 치유받고 나가서 말씀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라면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나라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화되도록 치유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올림픽장로교회 성전 이전 감사 예배

께서 예배자들을 찾으시는데,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온전히 주를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고 했다.

또 이 목사는 “날마다 이곳을 통해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상처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거룩한 곳에 서다’(여호수아 5:13-15)라

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권혁빈 목사(씨드교회)는 “지금의 시대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내는가라는 것이 요즘 신앙인들의 과제이다”라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시길 믿는다”고 했다.

축사를 한 남성수 목사(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는 “학개서 2장 9절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했다. ‘만

군의 여호와와 같이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 나’라면서 “이전 영광과 나중 영광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영광을 생각할 때 한가지 고정관념이 쌓여있었다. 예배자들이 성전에 돌아오려고 했을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제대로 된 건축 자재도 없고 절망적인 것이다.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우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이다. 성전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곳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평강이 임하는 곳이 된다”고 말했다.

남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확신하고 예수에게 감격하는 것이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늘 평강을 주시기를 축원한다”고 했다.

이날 감사예배는 정장수 원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토마스맹 기자
주소: 3055 Wilshire Blvd #220, Los Angeles, CA 90010

미드웨스턴 이상환 교수 온라인 북 콘서트

‘For the Church’의 가치로 복음적이고 실제적인 신학을 지향하는 미드웨스턴 한국부의 해석학 교수인 이상환 교수가, 그의 신간인 ‘Re: 성경을 읽다’ 출간에 맞추어 ‘학영 출판사’와 온라인 북 콘서트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다.

이상환 교수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자신이 책을 출간하게 된 계기부터 독자의 성향과 필요에 따라 책을 읽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특별히 성경 해석을 위한 준비 중 배경지식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이 교수는 “성경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텍스트와 가정된 배경지식을 함께 보는 눈이 필요하다. 문자는 성경을 통

해 접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전제된 배경지식을 알지 못한다면 텍스트의 온전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성경저자와 같은 시대, 같은 문화, 같은 환경을 살던 사람을 일차 독자라고 한다면, 성경시대와 다른 시대, 다른 문화, 다른 환경을 살며 당시의 배경지식을 알지 못하는 현대 독자는 이차 독자가 된다. 이상환 교수는 이차 독자인 현대인이 일차 저자와 독자가 살며 공유했던 삶의 문화나 양식이 없기 때문에 당시의 삶이 반영된 성경을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따라서, 성경의 온전한 의미를 파악하며 읽기 위해서는 저자가 말한 배경지식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학영 출판사의 이학영 대표는, “한국 교회



에 올바른 성경 해석이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환 교수에게 출판을 의뢰했다. 앞으로도 한국 기독교계에 잘 알려지지 않거나, 다루지 않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을 책들을 출판하여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줌 웨비나로 진행된 이번 북 콘서트에는 약 150여명이 실시간으로 참석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상환 교수는 북 콘서트 후반부에 미드웨스턴 박성진 교수와 함께 참여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질의 시간을 통해서 올바른 성경 해석을 위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연습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며 2시간 가량의 북 콘서트를 마무리했다.

미드웨스턴 입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 웹사이트(www.mbts.edu/ks)를 통하거나 김윤주 팀장(이메일: ks@mbts.edu; Tel.: 816-414-3754)에게 문의하면 된다.

토마스맹 기자

한미연합회 ‘2023-2024 모의유엔 프로그램’ 중·고교생 모집

한미연합회(KAC, 대표 유니스 송)는 2023-2024년도 모의유엔(Model United Nations, 이하 “MUN”) 프로그램에 참여할 중·고등학생들을 모집한다. 금년에도 KAC 모의유엔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프로그램 기간 중에 진행되는 MUN 대회들은 대면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회 준비를 위해 대회 사전 준비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오프라인으로 갖을 계획이다.

KAC MUN 프로그램은 차세대 글로벌 리

더 양성의 일환으로 2006년에 창설되어 18년동안 운영되고 있으며, 참가 학생들의 연설, 글쓰기, 비판적 사고 능력, 설득력 및 지도력을 키우는 교육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직접 주도하는 모의유엔 대회와 지역사회 현안 옹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 MUN 학생들은 2개의 킥 퍼런스 대회에 참가해 10개의 상들을 수상을 하였으며, KAC MUN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들 중에는 Princeton, Stanford, Duke, Columbia, Boston University, Dartmouth,

Harvard, USC, UC Berkeley, UCLA, 등 우수한 대학에 입학하는 성과를 거둔 학생들이 많다.

KAC MUN 프로그램은 오는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매주 2시간 30분씩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 남가주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8학년에서 11학년 중·고등학교 학생 ▲ 12학년은 이전 KAC 모의유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조기 지원 마감일은 8월 6일(일)이고 정

규 지원 마감일은 8월 20일(일)이다. 서류 전형에 합격하면 면접일은 개별 연락하며, 최종 선발자는 9월 5일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방법은 지원서와 함께 이력서와 추천서, 학교 성적표 등을 첨부해 구글 링크로 접수하거나 한미연합회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프로그램 등록비는 8월6일까지 조기 지원할 경우 135불, 8월 7일부터 20일까지는 150불이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매달 75불의 수업료가 부과되며,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혜택도 제공한다.

문의: 전화 (213) 365-5999

토마스맹 기자

SUMMER SPECIAL SALE

차종에 따라 36개월까지 0%이자가능

NEW 2023 HYUNDAI IONIQ 5 SE

0%

APR Financing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36개월까지 할부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36Months

NEW 2023 HYUNDAI Ioniq 6 SE

NEW 2023 HYUNDAI TUCSON SE

NEW 2023 HYUNDAI SantaFe SE

Lease Special

2023 IONIQ 6 SE

\$279 10,000 mile/year
MO + TAX \$6,995 due at lease signing

2023 IONIQ 5 SEL

\$299 10,000 mile/year
MO + TAX \$6,995 due at lease signing

STEVE CHANG 213.235.6825 | PAUL KIM 714.331.3855 | MIKE LEE 714.914.8414 | JUSTIN KIL 213.999.3935 | CHARLEY JEONG 213.276.8959 | JAMES PARK 213.839.3332 |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888-644-7114 |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총장 사역도 나 아닌 하나님 것임을 먼저 인지해야”

플러신학교 데이비드 임마누엘 고틀리 총장

팬데믹 상황이 마무리되면서, 한국과 세계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 수행을 위한 새로운 목표와 방향 설정으로 분주하다. 크리스천투데이의 창간 23주년을 맞아 미국 등 주요 신학대 총장들에게 교회와 선교계의 주요 현안과 전망을 청취했다.

텐버신학교 마크 영 총장에 이어, 플러신학교 데이비드 임마누엘 고틀리(David Emmanuel Goatley) 총장을 만났다. 고틀리 박사는 지난 1월 21일 미국 플러신학교 사상 첫 흑인 총장으로 취임해, 첫 학기를 지내고 지난 6월 말 코리아센터 김창환 학장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제6대 총장인 고틀리 박사는 듀크 신학대학원(Duke Divinity School)에서 학업 및 소명 형성 부학장, 루트 W. 및 A. 모리스 윌리엄스 주니어(Ruth W. and A. Morris Williams Jr.) 신학과 기독교 사역학 연구 교수, 흑인 교회 연구소 원장 등으로 섬겼다.

켄터키주 출신인 고틀리 박사는 루이빌대학교(University of Louisville)에서 지도와 상담학 학사 학위를, 남침례신학대학원(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목회자 돌봄과 상담 M.Div.와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전미침례교회(National Baptist Convention)에서 안수를 받고 켄터키주 캠퐸스빌(Campbellsville) 제일침례교회 담임목사로 9년간 재직했으며, 이후 20년 이상 롯데리침례회 외국인선교회(Lott Carey Baptist Foreign Mission Society) 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각 학교 구성원 의견 주로 청취 한국인들, 활동력과 비전 제공 창조적·창의적 사역, 영감 불러

-한국을 찾은 목적은 무엇인가요?

“플러신학교 동문과 재학생, 여러 교회들과 신학교, 대학교 등과 협력을 논의하고 증진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신학자이자 학교 코리아센터 학장인 김창환 교수와 함께하게 돼 더욱 기쁩니다.”

-올해 초 총장에 취임하셨는데, 이번 학기 동안 어떤 일들에 주력하셨는지요.

“말하신 것처럼 저는 올해 초 플러신학교 6대 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 흥미진진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플러신학교가 75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75주년 행사에 주력했고, 이사회와 교수진, 직원들과 학생, 그 외 동문과 각계 인사들,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청취하면서 보냈습니다.

특히 플러신학대학원과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 동문들과 재학생 등과의 관계는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

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걸로 하는데, 코리아센터의 현황은 어떻게 평소 한국 학생들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한국 학생들은 플러신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활동력과 비전을 비롯해 여러 많은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 전체에 역동성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역동성과 영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받은 리더로 길러낼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특히 코리아센터 박사 과정 학생들은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사역을 하고 있고, 이를 반영하면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 논문들은 본인들의 사역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학교의 명성만큼 풀러의 교수진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 교회를 위해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여러 서적을 펴내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교수진이 있습니다. 커스틴 김(Kirsteen Kim) 박사님은 세계적인 선교학자로서 선교학 관련 도서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영(AMOS Young) 박사님도 순복음 쪽의 학문 분야에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카라 파월(Kara Powell) 박사님은 청소년의 신앙을 이해하고, 이들을 제자로 세우도록 돕고 있습니다.

심리학과 신시아 에릭슨(Cynthia Erickson) 박사님은 융합적 접근을 통해 전 세계에서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다니엘 리(Daniel D. Lee) 박사님은 아시아계 미국인 센터를 이끄시면서, 미국 내 아시아인들의 신학에 대한 책을 출판했습니다.

플러신학대학원은 교회를 섬길 사역자들을 학문적이고 실천적으로 양성해온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선교학과 목회학 과정을 통해 선교지와 목회지에서 기여할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설립 때부터 전 세계 각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기독교 지도자로서 잘 준비되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지도자 양성을 위한 두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와 신학부이고, 다른 하나는 심리학과 결혼, 가족치료입니다. 이 두 분야가 교파를 초월해 서로를 접목시키면서 융합적으로 협력해,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이들이 온전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창환 학장의 부연 설명도 이어졌다. “각 분야에 40여 명의 학자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코리아센터 학생들은 한국인 교수들에게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영어권 교수들의 가르침도 함께 접하고 있습니다.”



6대 총장에 취임한 플러신학교 데이비드 임마누엘 고틀리 총장 ©송경호 기자

팬데믹, 공동체와 관계 교훈 줘 다양한 신기술 사용 조건 제공 AI의 무비판적 수용, 좋지 않아 신학과 AI 관계 연구 프로젝트 챗GPT, 설교 준비 도움 주지만 설교는 교류 가능한 목회자가

-코로나 이후 미국 교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신학 교육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요.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 교회와 신학대에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이 변화를 가속화시켰다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변화도 있고,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팬데믹 전부터 외로움과 소외감으로 힘들어 하던 사람들은 팬데믹을 통해 그것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다른 사람들과 건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하는 교훈도 주었습니다. 또 교회와 신학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선택사항으로 여겼지만, 이제 기술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챗GPT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얼마 전 독일에서 실제로 챗GPT가 설교까지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기술 발전은 사회뿐 아니라 교회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이메일이나 인터넷 뱅킹이 보편화됐지만, 여전히 디지털 격차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한 변호사가 인공지능에게 쓰게 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오류가 많아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기술 혁신은 결국 인간에 의해 개발된 것이고,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일요. 따라서 AI를 포함한 모든 기술은 인간을 대체할 수 없지만, 보완 가능성이 있는 도구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플러신학대학원은 신학과 인공지능의 관계성을 연구하는 팀을 조직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작업에 참여하게 돼 기쁘고,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파트너들과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AI가 설교를 해도 될까요?

“제 생각에 AI는 설교 준비와 신학 연구 등 일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예전에는 소수의 성직자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지만, 인쇄술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는 설교 준비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AI는 결코 사람들의 눈을 마주 볼 수 없고, 응답할 수 없고, 그들이 어떻게 설교 말씀에 반응하는지 볼 수 없습니다. 설인간적인 교류가 없는 것이죠.

세부 사항과 데이터가 있지만, 그것들만으로 포착할 수 없는 인간의 역동성과 결단력,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도움이 되는 도구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대웅·김신의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365일 24시간 주님과 함께!

CGN LIVE와 함께!

**무료
시청**

LIVE

**스마트폰에 CGN LIVE 앱을 설치하시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CGN LIVE 앱
설치방법

구글 플레이 앱 또는
앱 스토어에서
CGN LIVE 를
검색 하세요

무료
다운로드

아이폰 (iOS)

Download on the
App Store

설치문의 :
323-932-1200

TV로 CGN LIVE 시청하기

남가주 디지털공중파 채널 44.9(디지털안테나 설치)
CGN 시청용 전용수신기 설치 (HD 고화질로 시청가능)

문의 : 323-932-1200 | cgntvusa@gmail.com

추천 프로그램 방송시간 안내(LA시간)

- 새벽기도회 오전 2시 / 오전 5시
- 주일예배 오전 7시 ~ 오후 10시 30분
- 하용조목사의 말씀 오전 3시 50분 / 오전 9시 / 오후 6시 50분
- 설교말씀 월요일 ~ 금요일 - 오후 10시 30분
월요일 ~ 토요일 - 오전 7시 10분 / 오전 7시 50분 / 오후 2시 / 오후 2시 40분 / 오후 4시 10분 / 오후 5시 30분 / 오후 10시 30분 / 오후 12시 40분
- 성경읽기 월요일 ~ 토요일 - 새벽 3시 10분 / 오전 6시 20분 / 오전 10시 30분 / 오후 7시 30분 / 오후 11시 40분
- QT(말씀묵상) 새벽 2시 50분 / 오전 6시 / 오후 9시 30분
- 건강체조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 50분 / 오후 7시 50분
- 조해련의 오십소 화요일 오후 6시 10분 / 목요일 밤 12시 / 금요일 오전 10시 50분
- 신앙간증(여메이징 그레이스) 수요일 오후 6시 10분 / 목요일 오전 10시 50분
- 신앙간증(더불어 사는 삶) 수요일 오전 6시 40분 / 목요일 오전 12시 10분 / 금요일 00:00 / 토요일 10시 50분



남가주 한인들을 위한 차세대 외래 진료 클리닉

희를
굿다

드디어,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조이스 리, M.D.

진료과목

만성 질환

→ 당뇨, 비만,
관절염, 고혈압,
골다공증

노인성 질환

→ 치매, 낙상,
우울증, 요실금,
수면장애, 보행
장애, 영양실조

부인과 질환

→ 질염, 골반염,
자궁경부염

예방 접종

왜 병원에서의 기다림을 당연하게 여기시나요?

오랜 대기시간만큼 만족스러운 진료를 받아오셨나요?

무성의 진료로 숨은 병을 발견하지 못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사태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시니어 환자분들을 위해 최적의 진료 시스템을 도입한 센터메디컬클리닉을 경험해 보세요.

**하루 진료 환자 최대 7명, 인당 최대 1시간!
한분 한분 정성을 다해 모십니다.**

* 환자 등록 선착순 300명까지 / 진료 사전 예약 필수

- 세분화된 현대의학 단점 보완
- 질병 예방·건강한 삶 유지 초점

가정의학과 박사

조이스 리 초대 주치의

Joice Rhee, M.D.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평생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진료시간 : 월 - 금 8:30 am ~ 5:30 pm
(714) 519-3024 *예약과 자세한 사항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1995 W Malvern Ave, Unit A, Fullerton, CA 92833

* 플러튼 골드짐 근처 T-Mobile과 Subway 사이에 위치

美 교회 · 종교기관 신뢰도, 사상 최저 수준

32% 불과해 2021년보다 5% 하락

중요 사회 기관에 대한 미국인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교회나 종교기관을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32%, “공립학교를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25%로, 사상 최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은 지난 6월 1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성인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갤럽은 12개 이상의 기관에 대한 미국인의 신뢰 수준을 샘플링했으며, 표본오차는 ±4%p다.

그 결과 응답자의 32%는 교회와 조직화된 종교기관에 대해 ‘상당한’ 또는 ‘적당한’ 신뢰를 나타냈지만, 이는 2021년에 기록된 37%보다 낮은 수치였다. 그러나 2022년에 기록된 31%보다는 소폭 올랐다.

미국인의 26%는 공립학교에 대해 ‘상당

한’ 또는 ‘적당한’ 신뢰를 나타냈으며, 이는 2014년에 기록된 역대 최저치와 2021년의 32%보다 낮은 것이다.

미국인의 27%는 미국 대법원에 대해 ‘상당한’ 또는 ‘적당한’ 신뢰를 나타냈으며, 이는 2022년에 기록된 25%의 역대 최저치에서 2023년 27%로 높아졌으나 2021년 36%보다 낮은 것이다.

공립학교, 대법원 및 교회 또는 조직화된 종교단체에 대한 신뢰 수준은 당파에 따라 크게 달랐다.

공화당원의 49%가 교회 또는 조직화된 종교단체에 대해 상당한 신뢰 수준을 나타낸 반면, 민주당원과 무소속 지지자는 25%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공화당원(43%)이 민주당원(15%)보다 대법원에 대해 ‘상당한’ 또는 ‘적당한’ 신뢰를 나타냈으며, 이는 대법원이 미국 헌법에 낙태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결정한 2022년 판결 등에 대한 민주당원의 반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의 26%는 대법원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를 표명했다.

갤럽이 1979년 이래 지속적으로 여론을 조사해 온 9개 기관의 평균 신뢰도는 올해 26%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27%, 1979년 최고치인 48%에 비해 하락한 수치다.

대다수의 미국인은 중소기업(65%)과 군대(60%)에 대해 ‘상당한’ 또는 ‘적당한’ 신뢰를 나타냈다. 이 두 기관 모두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의 신뢰도를 기록한 것이다. 공화당원(68%), 무소속(66%), 민주당원(64%)의 대다수는 중소기업을 신뢰했고, 군에 대한 신뢰도는 공화당원(68%), 민주당원(61%), 무소속(55%) 순이었다.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올해 43%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IT 기업(26%)과 대기업(14%)의 신뢰도는 지난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2021년까지만 해도 미국인의 절반 이상(51%)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표명한 바 있다.

2023년에 처음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신뢰도를 기록한 유일한 기관인 경찰의 경우, 법 집행에 대해 공화당원(60%)이 민주당원(40%)과 무소속(38%)보다 ‘상당한’ 또는 ‘적당한’ 신뢰를 나타냈다. 또 공화당원(17%)의 대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무소속(15%)과 민주당원(10%)을 넘어섰다.

민주당원과 무소속 지지자의 27%가 IT 업체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보였고, 공화당원의 22%가 그 뒤를 이었다.

CP는 “공립학교와 IT 업체에 대한 공화당의 낮은 신뢰도는 학교 커리큘럼과 도서관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부모의 우려 속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보수적인 계정을 검열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리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난 트위터 파일 공개는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IT 업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美 남침례회 전 총회장, 女목사 금지 반대한 흑인교회들 지지

“새들백·펜크릭교회 사건, 다른 접근 방식 필요”

미국 남침례회(SBC) 전 총회장인 J. D. 그리어 목사가 여성 목사 안수를 금지한 SBC의 최근 결의안에 대한 전미아프리카계미국인협회(NAAF)의 도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 소재 서밋교회(Summit Church)를 이끌고 있는 J. D. 그리어(J. D. Greear) 목사는 14일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이 개정안은 개별 교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우리의 과거 관행과는 맞지 않는 방식으로 순종의 수준을 낮춘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그리어 목사는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간다면, 지역사회에 다가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아닌,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에 초점을 맞춘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한 전조를 원한다면, 지금 바로 남침례회 SNS 피드를 살펴 보라.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화인가? 난 교회를 세세하게 관리하는 데 지쳤다. 지상명령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지옥으로 가는 이들이 너무 많기에, 우리가 감시하며 수렁에 빠질 수 없다”고 했다.

NAAF는 SBC에 소속된 4천 개 이상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회 네트워크다. 이들은 최근 SBC 총회장 바트 바버(Bart Barber)에게 보낸 서한에서 여성 목사 금지에 대해 비판하며, 이 문제를 놓고 더 기도하고 대화할



미국 남침례회 전 총회장 J. D. 그리어 목사. ©Courtesy of Adam Covington

것을 제안했다.

여성이 목사로 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SBC 헌법 개정안은 6월 14일 SBC 연차 총회에서 약 80%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또 리 워렌 목사의 새들백교회와 펜크릭 침례교회가 여성 목사 이슈로 제명됐다.

이에 대해 그리어 목사는 “교단의 여성들이 목사로 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신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헌법적인 이유로 이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개정안 지지자들은 우리 협약의 ‘상호 보완론’에 대한 지지가 명확해지고 강화되기를 바라는 바람을 표명했으며, 저도 이를 지지한다. 이것(개정안)은 그에 대한 잘못된 메커니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새들백교회와 펜크릭교회 제명 처분은 SBC가 이미 ‘평등주의를 수용하는 교회’를 다룰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다. 실제로 평등주의를 수용하는 교회를 제거함으로써 이차적인 불일치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새들백교회와 펜크릭교회 사건이 그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텍사스 알링턴 소재 코너스톤 침례교회의 드와이트 맥키식(Dwight McKissic) 목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NAAF 서한과 새들백교회의 제명에 대한 바버 목사와 그리어 목사의 근본적으로 다른 반응에 놀랐다”며 “@바트 바버 & @그리어의 NAAF에 대한 반응과 새들백교회에 대한 반응이 왜 그렇게 근본적으로 다르지에 대한 사회학자의 설명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새들백교회에는 남성 담임목사와 남성으로만 구성된 장로회, 여성 직원 목사가 있는데, 이는 여성 목회자에 관한 NAAF 서신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하다. 진심으로 이것은 나에게 미스터리”라고 했다.

맥키식 목사는 “난 NAAF & 새들백교회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처리의 차이는 새들백교회에 대한 결정이 교리가 아닌 남성들에 의해 주도됐음을 시사한다. NAAF 교회를 제명하지 않는 목표가 공통점과 상호 대화를 위한 의도적인 결과라면, 왜 새들백교회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가? 나는 NAAF 서한에 대한 응답으로 새들백교회에 대한 결정이 철회되고 NAAF 교회 한 곳도 제명하지 않기를 바란다. NAAF와의 화해가 발생하면 일관성과 무결성에 따라 새들백교회와 화해를 요구한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브라운대 학생 38% “난 성소수자”

미국 전국 평균보다 5배 이상

아이비리그에 속한 명문대인 미국 브라운대학의 학생 10명 중 4명이 자신을 성소수자(LGBTQ+)라고 밝혔다. 이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10일 뉴욕포스트(NYP)등 외신에 의하면, 브라운대 학생신문 ‘브라운 데일리 헤럴드’가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 38%가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밝혔다.

NYP가 10년 전 비슷한 설문을 진행했을 때는 그 비율이 14%였다.

융합연구로 유명한 브라운대학은 미국에서 7번째로 오래된 대학으로, US News & World Report가 선정한 미국의 4년제 대학 순위에서 13위를 차지했다.

복수 응답이 허용된 조사에서 LG-BTQ+ 응답자들의 가장 일반적인 성향은 양성애(53.7%)였으며, 동성애자 22.86%, 탐색 중인 사람 17.71%, 퀴어 14.29%, 범성애자 7.14%, 무성애자 4%가 그 뒤를 이었다.

브라운대 성소수자 비율은 미국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5배 이상이나 되는 수치로, 지난해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7.2%가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답했다. 18~25세 사이의 경우 19.7%였다. 특히 1997년 이후 태어난 Z세대 성인의 경우 21%였다.

강혜진 기자

강사

- 저녁집회 - 허봉기 목사 (찬양교회 은퇴)
- 특강강사 - 류응렬 목사, 권혁빈 목사, 김태일 목사, 유원식 회장, 백신중 목사, 심창섭 목사, 김형주 목사, 조명재 목사, 이영자 사모, 유성실 사모, 백은경 사모
- 특별순서 - 지나 자매 (유튜브 채널 Gina) 집회, 볼티모어 한국교회 역사탐방 (아펜젤러 선교사 파송교회,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 박에스더 묘소)



허봉기 목사

NEXT 이미준

주제
이민교회
미래와 창조적 목회

2023 포럼

일시 : 2023년 10월 3일(화) - 6일(금)

장소 : 벤엘교회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BWI 공항)

등록비 : 개인 300불 (부부 400), 숙식 및 도서선물 포함
마감일 : 8월 31일 (선착순 100명), 9월 1일 이후 개인 350불 (부부 450)
문의 : 조명재 목사
nextemijoon@gmail.com
Tel. 310 413 5333



지나 자매 (유튜브 채널 G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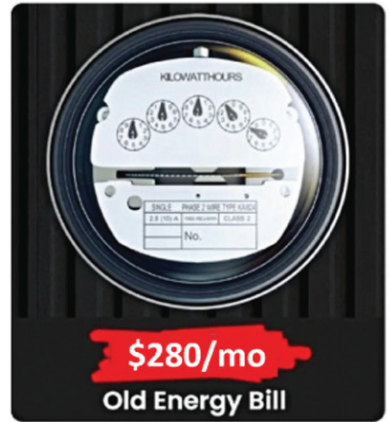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70% Tax Benefit

**2023년
대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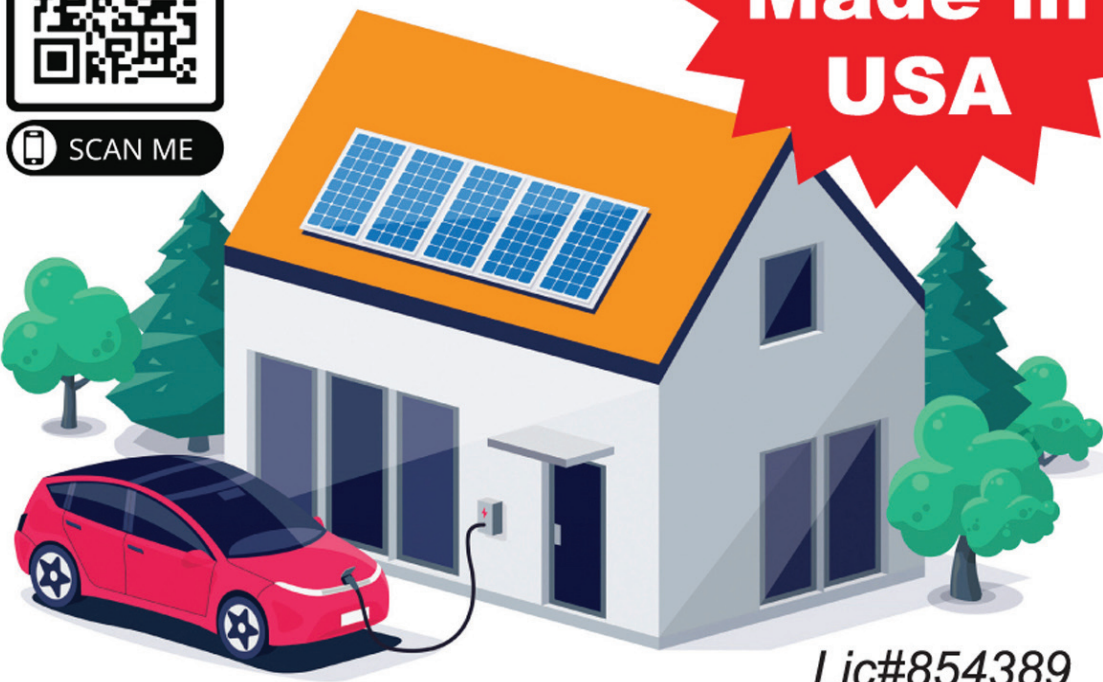
전기세가 11달러?!



**100%
Made in
USA**



SCAN ME



Lic#854389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 Zero Down Payment
- ✓ 전기료 50~90% 절감
- ✓ EV Car Outlet Free

*** 전기세 50~90% 절감 ***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 전기세 ~~30~50%~~ **50~90% 절감효과**
- ✓ **Zero Down Payment**
- ✓ **최고 성능의 안정적인 패널**
- ✓ 모든 제품군 **최장기간 Warranty**
- ✓ 남가주 전 지역 최단기간 설치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www.btssolardesign.com

TALK BTSSolar

213.500.8000
714.702.0151

CELLS PARTNER

-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세요.
1. 문의 전 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 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 주세요.
 3. 메시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캠프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9:15) 새벽예배 (월-토) 오전 6시
3부예배(새벽예배) 오전 11:30 (토-일) - 한성교회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보)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대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유하여,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en 고지)
T. (213) 386-2233

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 1부 전례예배 오전 7:3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 2부 전례예배 오전 9:00 어우러진(ANNA) 주일 오후 2:30
주일 3부 열린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학교 오전 9:3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영유아부/유치부, 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fice1@gmail.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례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기에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고광선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교회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요동부 오전 10:50 토요일예배 오전 6:00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신령 새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강지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고송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inlandchurch.org

서사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주님의 사랑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213) 618-0614
lords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6:30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와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치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안아름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목요집회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침내)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김지성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토)예배 06:00AM
-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wgmc.org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벽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줄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안정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wkum.com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예수 혁명’ 시작된 해변서 4,500여 명 침례



침례를 돕고 있는 그렉 로리 목사. ©하베스트펠로우십

그렉 로리 목사와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하베스트크리스천펠로우십(Harvest Christian Fellowship)이 주관한 전도 행사에서 약 4,500명 이상이 침례를 받았다.

‘예수 혁명 피레이츠 코브 해변 침례식’(Jesus Revolution Pirate’s Cove Beach Baptism)으로 알려진 이번 행사는 8일 피레이츠 코브 해변(Pirate’s Cove Beach)에서 열렸으며 약 20,000명이 모였다. 침례를 받은 수천 명의 교인들 중에는 로리 목사의 손녀인 스텔라도 있었다.

로리 목사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보낸 성명에서 “이렇게 많은 이들이 침례를 받은 것은 최근 개봉한 영화 ‘예수 혁명’의 성공을 포함한 여러 요인들 덕분”이라며 “예수 혁명은 이들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쳤고, 많은 이들이 이 영화를 본 뒤 그리스도께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영화 속 침례 장면이 감동을 받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같은 발걸음을 내딛고 싶어했다. 그것은 삶을 모방한 예술이었고, 그 예술은 나와 다른 많은 이들의 실제 이야기를 기반으로 했다”고 했다.

최근 혼다 센터에서 열린 소칼 하베스트

트(SoCal Harvest) 집회에서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결신했다고 전한 로리 목사는 “우리는 그들 모두를 이 침례식에 초대했다”고 밝혔다.

로리 목사는 1970년대 피레이츠 코브에서 열린 대규모 침례식을 언급하며 “대규모 침례식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다. 난 거기에 있었고, 그곳의 한 장소에서 직접 침례를 받았다”며 “그러나 이번은 다르다. 첫째, 이는 우리가 그동안 진행한 어떤 침례식보다 규모가 크다. 침례를 받으려는 이들의 줄이 0.5마일이나 됐고, 사람들은 2시간 이상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이를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분위기는 압도적이고 아름다웠으며, 놀라운 이야기들도 너무 많았다. 85세의 한 노인이 ‘예수 혁명’ 영화를 보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며, 영화가 촬영된 장소에서 침례를 받기를 원했다. 그의 가족들에게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고, 한 가족은 그가 제일 마지막에 그리스도께 올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세례를 받은 이들에 대해 “지역교회에 잘 연결됐는지 확인하고 제자 훈련을 받도록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성인 58% “바이든의 낙태 정책에 반대”

AP통신-NORC 연구센터, 성인 1,220명 대상 조사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미국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낙태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AP통신-NORC 공공문제연구소(Center for Public Affairs Research)는 13일(이하 현지시간)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미 성인 1,22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오차범위는 ±3.9%p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바이든의 직무 수행과 낙태 정책 처리에 대해 각각 41%와 58%의 지지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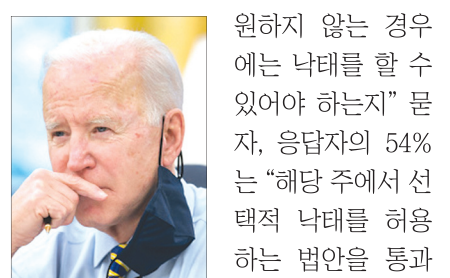
지난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낙태 합법화)가 뒤집힌 후 뜨거운 정치적 이슈로 떠오른 낙태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의 낙태 정책을 39%가 지지한다고 답한 반면, 58%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낙태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응답자의 60%는 “의회가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에도 동일한 비율의 응답자가 같은 대답을 한 반면, “낙태 합법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지난해 38%에서 올해 39%로 소폭 늘었다.

“태아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앓고 태어날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가상의 법안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올해는 75%였고, 지난해에는 77%였다. 해당 법안을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지난해 21%에서 올해 22%로 소폭 늘었다.

“임신으로 인해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을 처한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가상의 법안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올해 86%였고 지난해 89%였다. “간강이나 근친상간의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가상의 법률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지난해 86%에서 올해 84%로 소폭 줄었다.

그러나 “여성이 어떤 이유든 임신을



조 바이든 대통령 ©White House / Lawrence Jackson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낙태를 할 수 있어야 하는지” 묻자, 응답자의 54%는 “해당 주에서 선택적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고, 이 수치는 2022년 이후로 변동이 없었다.

“여성의 선택적 낙태를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지난해 44%에서 43%로 소폭 줄었다. 또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가 2023년(73%)과 2022년(74%) 모두 임신 첫 6주 동안 합법적인 낙태를 지지했지만, 임신 첫 15주 동안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에 대해선 분열된 입장을 보였다. 2023년에는 응답자의 51%가 임신 첫 15주 동안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을 선호했는데, 이는 2022년 53%보다 줄어든 것이다.

응답자의 다수가 2023년(68%)과 2022년(65%) 모두 임신 24주 동안 합법적인 낙태에 반대했다. “지역사회의 여성들이 낙태를 하는 것이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다수의 응답자(39%)가 “너무 어렵다”고 한 반면, 32%는 “거의 옳다”고, 24%는 “너무 쉽다”고 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지역사회에서 산전 관리(56%)와 가족 계획 서비스 및 피임(54%)에 대한 접근이 “옳다”고 생각했다. 응답자의 28%는 “너무 어렵다”고 한 반면, 낮은 비율이 산전 관리(11%)와 가족 계획 서비스 및 피임(14%)에 대한 접근이 “너무 쉽다”고 생각했다.

최신 AP-NORC 설문조사 결과는 연방대법원이 낙태 합법화를 뒤집는 판결을 한 이후 여러 주에서 낙태의 합법성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잇따라 취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강혜진 기자

“中 공산당, ‘중국화된 기독교’ 전 세계 수출 계획”



중국 동남부 장시성에서 시진핑 주석의 사진을 걸고 있는 중국인들. ©한국순교자의소리

인권 잡지 비터윈터 보고서, 우려 표명

종교 자유 및 인권 잡지인 비터윈터(Bitter Winter)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은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기독교를 전 세계에 수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보고서는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지린성 북동부에서 열린 ‘중국 동북 기독교 지역 주요 목회자 훈련회’는 시진핑(Xi Jinping) 국가주석과 공산당의 ‘거대한’ 계획의 출발이었다”고 전했다.

해당 대회는 전국적으로 중계됐으며, 중국 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의 칸 바옉(Kan Baoping) 목사와 중국기독교위원회 산 웨이시양(Shan Weixiang) 목사가 연사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터윈터에 따르면, 칸 목사는 ‘사회주의 사회에 적합한 기독교’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삼자운동이 ‘기독교의 중국화 성공’이라는 메시지를 증폭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국이 세계 기독교

의 얼굴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중공 당국은 ‘중국화’라는 용어를 사용해 기독교 단체들을 중국의 문화 및 역사적 전통에 맞추려고 했으나, 비평가들은 “기독교 중국화의 근본적인 목적은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소외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권단체 차이나이드(ChinaAid)는 “중국 공산당은 기독교를 도구로 활용해 ‘사이비 기독교’가 될 정도로 축소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12월 칸 목사와 삼자운동 지도자들은 1989년부터 2002년까지 중국 공산당(CCP) 총서기였던 장쩌민(Jiang Zemin)의 죽음을 기념했다. 칸 목사도 “장 서기가 기독교의 중국화를 시작하고 종교 사업에서 좋은 일을 했다”며 그를 치하했다고.

그러나 종교 자유 수호자들은 “수 년 동안 진행된 중국화 시도에는 성경을 중국 공산당 친화적인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쓰는 것도 포함된다”고 경고해왔다.

강혜진 기자

우크라이나, 수도원 폐쇄 앞두고 정교회-정부 갈등 심화

러시아정교회 측과의 ‘영적 유대’ 여부 논란

우크라이나의 한 수도원에서 정교회 신자들과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우크라이나정교회(Ukraine Orthodox Church, 이하 UOC) 신자들로 구성된 수십 명의 시위대는 지난 7월 4일 키이우(키예프) 동굴 수도원 단지에 있는 여러 건물을 점거하고 공무원들의 진입을 막았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정교회 성직자들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면서 1천 년 된 페체르스크 라브라 단지도 그 대상이 됐다. 일부 성직자들은 스파이 혐의로 기소가 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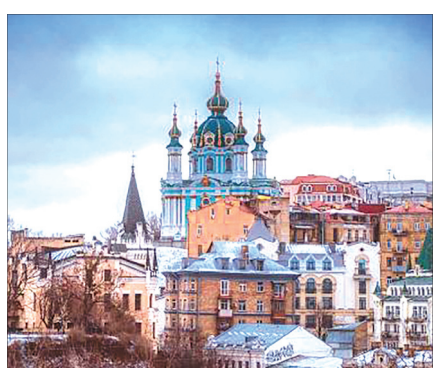
UOC는 이후 러시아의 침공을 비판하고 모스크바(러시아정교회)로부터 완전한 행정적 독립을 선언했으나, 정교회 지도자들은 여전히 모스크바와 ‘영적 유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정교회 기독교인들은 모두 슬라브 기독교의 뿌리를 10세기 키이우의 대량 세례에 두고 있으며, 키이우 페체르스크 라브라와 특별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지난 2023년 3월, 소련 붕괴 이후 이 수도원을 소유해 온 우크라이나 정부는 UOC와 임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문화부는 약 700명의 정교회 사제와 주요 신학대학의 학생과 직원, 부지에 있는 박물관, 대성당 및 기타 교회 근교자들을 퇴거시키겠다고 위협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언론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다른 정교회 수도원으로 이동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다.

UOC의 니코딴 칼롱저(Nilodim Kalonger)는 릴리저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모든 영역에 맞서 라브라에 있다. 이곳은 우리의 집이고, 우리가 이 안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만든



우크라이나 키이우(키예프) 정교회. ©픽사베이

것”이라고 했다. UOC의 변호사인 니키타 체크만(Nikita Chekman) 대주교는 텔레그램에 올린 성명에서 “UOC 퇴거에 대한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건물을 봉쇄하려는 위원회의 움직임은 불법”이라며 “명시된 상황에서 사제의 퇴거, 근거 없는 폐쇄 및 구내 접근 제한에는 형사 범죄의 징후, 즉 자의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문화부는 자체 성명에서 “경찰의 건물 접근을 차단한, 알려지지 않은 이들에 대해 ‘예방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사제들은 최근까지 예배에 필요한 아이콘과 의복을 만드는 상점을 수용해 왔다.

이에 칼롱저는 “건물이 교회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순례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승려에게 수입을 제공하기 때문에 종교 공간으로 간주돼야 한다”며 “5일 정오에 수백 명이 건물 밖에서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고 했다.

CT는 “수도원을 둘러싼 싸움은 UOC와 키이우 총대주교구 산하 우크라이나 정교회(Orthodox Church of Ukraine, OCU) 간의 더 큰 분열을 반영한다”며 “4월 UOC의 대표인 블라디카 앤소니(Vladyka Anthony) 대주교는 RNS와의 인터뷰에서 “두 단체 사이의 교구 전환이 사제들 간 폭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OC예배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OC예배 11:30
금요성경연구회 7:45 새벽기도회 5: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 오전 6:00
193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1, 818-363-888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최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콜라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국윤권 담임목사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Redeeming Grace(EM)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영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이항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홍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서보천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김경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중용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C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고창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PCM(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국학교(토요일) 오전 9:0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방상용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국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애민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청년부 오전 9:30, 11:30
한어(한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M)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E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지영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아린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서 오전 9:30(금)
청년기도회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림혁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성령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요일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C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박신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20 토요일 오전 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받는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리라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박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성경필사

장학생 모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3:16~17)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세상 미디어에 너무도 많은 시간을 쓰고 눈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성경말씀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에 너무도 많은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귀한 시간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기도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 본문 (한글, 영문 선택 가능)

마태복음 · 마가복음 · 누가복음 · 요한복음 · 사도행전 · 로마서

- 장 학 금 : 1인당 **\$1,000** (선정인원 50명)
- 응모대상 :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생, 대학생 (성경필사 노트 제공)
- 접수방법 : QR코드 참고
- 접수기간 : 2023년 8월 20일(일)까지
- 결과발표 : 2023년 8월 25일(금)
(기독일보 신문지면에 성경필사자 명단발표)
- 문의번호 : (213)739-0403, (213)434-1170



SCAN ME!

성경 필사 후 소감문 작성자 중 선별하여 특별 상품 수여

1등



노트북

2등



아이패드

3등



에어팟

*상품은 광고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장학금 전달식은 2024년 1월에 할 예정이며 날짜와 장소는 추후에 공지합니다

성경필사 후원/자/모/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기에 전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 주고자 후원하시길 원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후원방법 :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기부금은 세금공제 서류 발급 가능)

CHASE BANK Account #: 611921385 Routing #: 322271627 Zelle: chdailyreporter@gmail.com

기독일보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강준민 칼럼

밑줄을 그어 가며 책을 읽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저는 책을 좋아합니다. 성경을 가까이하고, 책을 가까이하며 삽니다. 저는 책 속에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습니다. 제가 읽는 책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소중히 여깁니다. 책은 저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책은 저를 결코 배신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저는 책과 우정을 나눕니다. 책이 저를 위로해 줍니다. 책이 저를 읽어줍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저를 읽어줍니다. 책이 저를 보게 합니다. 자신을 바로 볼 때 자신을 올바르게 성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올바르게 성찰할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거짓말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책은 눈을 열어 저를 보게 합니다. 저의 한계를 알게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알 때 겸허히 한계를 받아들이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책은 세계 영혼의 양식입니다. 식사 시간

이 되면 배가 고프니다. 밥을 달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책을 며칠 읽지 않으면 영혼의 배가 고프니다. 제게는 두 개의 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밥을 먹는 위입니다. 다른 하나는 책을 읽고 영혼의 양식을 먹는 위입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다 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양식이 필요할 때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것은 체계적입니다. 식사 시간은 체계적입니다. 일정합니다. 반면에 영적인 것은 비체계적입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뇌는 조용하다가 책을 통해 자극을 받을 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야 합니다. 책을 읽을 때 잠자는 지성이 깨어납니다. 지성이 깨어날 때 지혜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검색이 많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검색은 많은 데 깊은 사색은 적습니다. 접속은 많은 데 사람들과 진실된 접촉이 적습니다. 그런 까닭에 스마트폰과 사는 우리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더욱 소통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속도를 늦추어 책을 읽고, 깊이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깊은 맛을 볼 수 없습니다. 무엇이란 깊이를 추구하는 사람은 속도를 늦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친밀한 사랑은 속도를 늦출 때 가능합니다.

제가 책을 읽는 방법 중의 하나는 질문을

품고 책을 읽는 것입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질문도 많습니다. 그래서 책을 좋아하고 책에 몰입합니다. 질문을 품고 책을 읽다가 더 깊은 질문 속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질문이 깊어질 때 우리 묵상은 더욱 깊어집니다. 사색이 깊어질 때 영감이 떠오릅니다. 문제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문제에 대한 대책(對策)이 생깁니다. 대책(對策)을 넘어서서 상책(上策)이 떠오릅니다. 상책이란 가장 좋은 대책이나 방책을 의미합니다.

저는 정독과 속독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속독은 많은 양의 지식을 빠른 시일 내에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식의 양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양이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읽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많은 책을 읽으면 임계점에 이르게 됩니다. 책은 기존의 지식이 많을수록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식이 축적되면 독해력이 더욱 좋아집니다. 하지만 속독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깊이 숙고하면서 책을 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깊이 숙고하면서 읽기 위해서는 정독을 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독하는 길은 밑줄을 그어 가며 읽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문장을 만나면 밑줄을 긋습니다. 밑줄을 긋는다는 것은 제게 감동과 울림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밑줄을 긋는다는 것은 글이 아름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이 아름답기 때문에 다시 읽고 싶고,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우리는 다시 듣고 싶어집니다.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면 다시 방문하고 싶어집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 방문하고 싶은 책이 좋은 책입니다. 거듭 방문해서 다시 읽고 싶은 책이 좋은 책입니다. 책 중의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방문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밑줄을 그었다면, 그 밑줄이 우리를 멈추게 한 까닭입니다. 밑줄을 긋기 위해서는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밑줄을 긋는 부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밑줄을 긋는다는 것은 우리가 읽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책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식의 축적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있습니다. 기형도 시인이 쓴 [우리 동네 목사님] 이란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오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

성경에만 밑줄을 긋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헬렌 켈러는 "성경에 밑줄을 긋는 것도 좋지만 성경이 당신 삶에 밑줄을 긋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밑줄을 치면서 깨달은 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우리 삶은 변화됩니다. 진리는 실천을 통해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더운 여름이지만 가끔 책을 읽으면서 깊은 깨달음의 은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김한요 칼럼

굴곡의 인생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저는 8-90대 성도님들을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나 보니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이고, 나라가 독립하는가 싶더니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터지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밥 먹기도 힘들었던 보릿고개를 지

나셨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본 것처럼 독일 광부로 떠나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면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주인공이 되었고, '잘살아 보세' 노래를 부르며 새마을 운동을 하다가 셋방에서 연탄가스 먹고 죽을 고비를 넘겼고, 추운 새벽 공기를 뚫고 조그만 개척교회 마루바닥에서 눈물 푹푹 흘리며 새벽기도 하며 버거운 인생의 무게를 이기고, 이제 살 만한 때에 다시 낯선 이국땅에 이민 와서 말이 안 통하니, 한국 분이 운영하는 봉제공장장에서 시간당 급료를 받으며 바느질하다가, 새벽장에서 야채 과일 가게를 하다가, 아침 점심 장사하는 식당 주방에서 일하다가, 세탁소 인수하여 겨우 시간을 내어 주말에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힘겹게 키운 자녀들이 결혼하

여 멀리 떠나가고 텅 빈 집에서 허전한 맘에 병을 얻어 매일 약 먹으며, 어느덧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나이가 되어 버린 성도님들을 보면 그냥 가슴이 찡해집니다.

저같이 부모님 따라 미국 와서 부모님 희생의 언저리에서 밤격정 없이 자라온 자녀 세대들은 가끔 자기가 잘나서 여기서 이런 복을 누린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높낮이를 연필로 선으로 그려라하면, 굽직한 고난의 선이 선명한 부모님 세대는 오르락내리락 찹찹 산을 그릴 것 같고, 우리는 완만한 언덕 정도 그리는 수준일 것 같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올랐던 굴곡의 산을 완만한 언덕만 걸었던 우리가 오를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난 주말 있었던 장애인 신학 강좌를

통해, 우리 주위에 이 모든 인생의 굴곡에 또 하나의 짐을 지고 가는 장애인 가족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굴곡이 많았던 인생을 걸어왔던 분들은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만 걸었던 자들은 늘 자기가 생각했던 고정관념대로 살았지만, 고난의 산을 오르던 분들은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고, 날씨의 변화에도 적응하는 지혜를 터득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 은혜의 흔적이었습니다.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 은혜를 나누어 받았습니다. 내가 평탄하게 걸어왔던 내 방법으로는 넘을 수 없는 산을 만날 때, 이번에 만난 지혜가 그 산을 넘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 조선일보 가판대에서 기독교일보 신문 보실 수 있습니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수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르크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기독교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교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워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el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아의 정성이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슬랑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진유철 칼럼

신뢰와 진정성이 있는 믿음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세상의 길과 믿음의 길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길은 정보나 자기 지지기반 등, 모든 수단과 능력을 동원해서 '확실성'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확실성을 추구하려면 결국 이성이 뒷받침되고 경험을 따르기에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길은 '신뢰'를 추구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3친구는 우상을 섬

기지 말라는 말씀을 믿기에 느브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 풀무에 들어가 죽게 되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신앙은 확실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가므로 새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확실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영성을 깨운 헨리 나우웬의 인생 마지막 책, '마음의 길'은 '고독, 침묵, 기도'라는 3개의 표제로 구성된 짧은 책인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65회나 나오는 '신뢰'라는 말입니다.

이런 신뢰는 내 느낌, 내 감정, 내 의지와 같이 내 안에 있는 것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서 나오는 신뢰는 결정적인 위기나 어려움을 만나면 다 깨어지게 됩니다. 무너지지 않는 신뢰는 오직 하나님을 알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집중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백성들이 광야의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가나안 땅의 힘든 정복전쟁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창세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집중하면 신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잘 살고 있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친척, 친구, 고향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응답합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합니다. 어떤 슬로건과 이성의 힘으로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동안 아브라함은 흉년의 가나안 땅에서, 또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겼을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선교에 자기부인의 희생이 있는 진정성을 갖는다면 하나님을 체험하므로 신뢰하게 되고, 그럴 때 인생을 바꾸는 믿음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박동식 칼럼

'이중' 아닌 '무거운' 직으로서 목회직



박 동 식 교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조직신학

이재철 목사가 건드린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강연으로 논쟁이 뜨거웠다. 뒤늦게 목사의 강연 영상, <어떤 목사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를 봤다. 목사는 이 강연에서 젊은 목회자들이 갖춰야 할 목회적 소양에 대해 여러 가지로 현 목회 생태계를 나름 비판하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중직에 대해서만 뜨거운 것이 안타깝다.

목사의 요지는 먹고 사는 것에 더 몰입하기보다 목회자로 갖추어야 할 본질에 충실하라는 내용인 것 같다. 목회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립"인데, 성경적으로 경제적 자립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아니라, '내게 얼마가 주어지든 그것에 나를 맞추는 것'이라 했다. 이러한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

하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말씀을 설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은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현실을 너무 모른다거나, 가진 것이 있어서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이다. 정말로 그런가? 오히려 목사님이 목회자가 더 내려놓고 본질을 추구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책임져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해 봐야 그 목회가 힘 있는 목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무엇이 맞는 걸까? 어떤 논쟁이든 언제나 대립하는 입장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 찬성 반대로 접근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복잡한 층들이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중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아니 2중직 뿐이겠는가. 3중직 4중직도 해야 한다. 이것 가지고 교단이 '목회자는 이중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목회자를 사지로 내모는 격이며, 가난한 목회자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는 형국이다. 오히려 교단 차원에서 개 교회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져서 그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이민교회에서 목회자 이중직이 토론

거리도 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성도들도 목회자도 교단도 모두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자. '목회자 이중직을 허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중직을 하는 목회자의 자세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회자 이중직'이면 목회가 먼저이고 다른 직업은 부차적이어야 한다. 물론 다른 직업을 일차적으로 가지고 목회를 하는 분들도 있다. 이런 목회자들은 스스로도 목회에 비중을 두지 않기에 목회에 전념하라고 말씀드리지 않는다.

하지만 정말로 목회에 소명이 있고, 목회를 일구기 위해 애쓰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면, 부차적 직업에 쏟는 시간보다 목회에 더 많이 올인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부차적 직업이 먼저이고 목회가 뒷전이면 관철은가. 먹고 살기 위해 부차적 직업에 올인하다 보니 목회할 시간은 부족하고, 교회도 작은 교회여서 올 사람도 없다면서, 일부 시간만 할애하면 그것이 진정한 목회인가. 먹고 사는 문제로 풀타임으로 일하면 목회는 언제 하는가. 그러니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이고, 그럴 바에야 다른 직업을 선택하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그렇게 10년, 20년을 목회했음에도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10년, 20년 더해도 변화가 없을 것임은 자명하다. 목회자가

교회에 올인하지 않는데, 어느 성도가 그 목회자를 따르고 자신을 그 공동체에 헌신하겠는가.

제자 A 목사가 개척하면서 아내에게 '3년만 기다려 달라. 3년 동안 목회에 올인해서 자립이 안 되면 그만하겠다'고 했다. 이런 자세야말로 2중직이든 3중직이든 논하기 이전에, 목회자가 가져야 하는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이지 않다. 실제로 이런 마음으로 하니, 같이 하겠다는 이들이 모이고 역동적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았다.

이중직(二重職), '두 개'(二)의 직업이기도 하지만, 두 개의 '무거운(重)' 직업이기도 하다. 거듭 말하지만, 살기 위해서라면 두 개가 아니라 몇 개의 직업인들 갖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목회가 무겁고 귀중한 직업이라 여긴다면, 그 무게에 맞는 전적 헌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개척교회 몇 년 했다는 년 수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존재를 걸고 목회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숫자 '이중'이 아니라 그야말로 무겁고 귀중한 의미로서 '중직'이기 때문이다. 흔히들 교인이 20, 30명 정도 되면 교회는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도 자립한다고 한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악물고 거기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예배와 #삶을 #연결하다



원하트 청년 예배자 연합 수련회 '23

JOINT YOUNG ADULTS WORSHIP RETREAT '23

일시 | 7.28.금 - 7.30.주일 장소 | Azusa Pacific University (Duke Student Commons)

Retreat Speakers

(원하트 웹사이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남현수 목사
- 시애틀 형제교회
- 바셀 캠퍼스 총괄 목사
- KOSTA 강사



윤만 대표
- New Connect Freight 대표
- 제 21차 한상대회 공동대회장



한태욱 대표
- 커피브레이크 US 한인 대표
- Business & Life Coach



랜디김 대표
- Los Angeles Praise & Worship 대표
- Producer/Arranger/Conductor



김도일 목사
- 세계대교회 담임목사
- Lighthouse Studio Director



원하트 워십
- Worship & Praise

등록비 안내

개인 및 일반 교회 청년 \$120
단체 (10명+) \$90
작은 교회 청년 \$40
(장년성도 전체 30명 이하)

등록방법

www.oneheart-usa.com/retreat



원하트 미니스트리 웹사이트의 수련회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단체 등록은 전화 문의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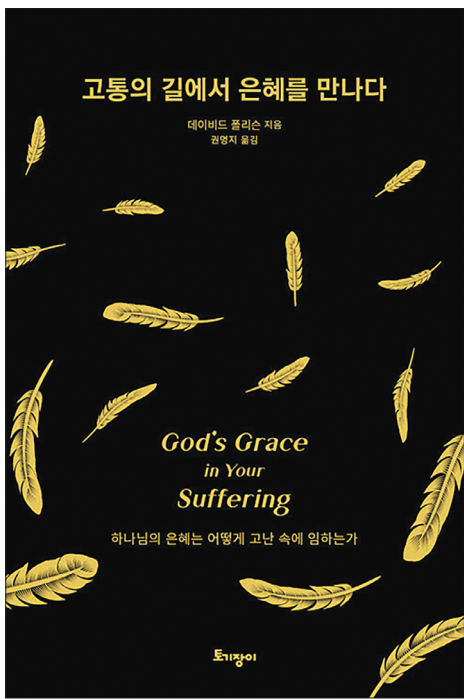
함께하는 단체 GBC 기독교일보 CBS TV WeBridge 교회연합

문의 213.347.5080 myoneheartministry@gmail.com www.oneheart-usa.com

ONEHEART MINISTRY

[크리스찬북뉴스서평] 세상 대신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고통 중에도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



수무책으로 당하는 자신에게서 돌려, 고난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한다.

데이비드 폴리슨은 제이 아담스가 시작한 성경상담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성경상담 학자이자 뛰어난 저술가이다. 그가 쓴 책은 무엇이든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성경적이다(토기장이에서 나온 <악한 분노, 선한 분노>를 반드시 읽어보라). <고통의 길에서 은혜를 만나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고난 속에 임하는가>는 폴리슨이 쓴 그 어떤 책보다도 개인적인 책이다.

먼저 이 책이 쓰여진 동기부터 저자가 경험한 고난이었다. 50세가 되었을 때 심장 수술을 받고 장기 후유증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고통받은 저자는 그 과정을 통해 이 책을 시작했다.

둘째, 각 장에서 폴리슨은 '나의 이야기'라는 소제목 아래 자신이 겪은 고통과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 친구들의 조언, 날마다 묵상한 시편, 찬송시, 출석하는 교회 목사의 설교 등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실질적으로 누렸던 저자의 간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실제로 고난 중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확증을 준다.

셋째, 흥미롭게도 이 책의 2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얼마나 견고한 토대인가(How Firm a Foundation)'라는 찬송가 가사를 한 절씩 묵상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극심한 고난 중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특히 찬송시에 담겨있는 진리가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바랄 수 없을 때 바라게 하는 소망을 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탁월한 성경상담 학자가 자기 영혼이 회복되는 과정에 일반적인 찬송과 시편 묵상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에 공감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일상에서 듣고 묵상하고 부르는 찬송이 얼마나 귀한 은혜의 방편인지 생각하게 된다. 우리에게 고난 중에 부를 찬송과 시편이 참 많이 주어졌다.

넷째, 폴리슨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선물은 당신의 필요에 딱 맞게 주어진다. 이 책의 절반은 당신 몫이다. 당신이 맡은 부분을 잘 해내면 더 나은 절반이 될 것이다(21쪽)"라고 말했다.

이 책엔 독자가 참여할 수 있는 항목이 굉장히 많다. 빈칸을 채우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현재 당하는 고난 중에 느끼는 것과 바라는 것, 구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등을 구체적으로 적게 한다. 지극히 개인적인 간증을 구체적으로 나눈 저자는 독자가 자신처럼 그들의 간증을 나누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이 책의 절반을 완성하기를, 고난 속에 임하는 하나님 은혜를 자신처럼 풍성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원한다.



©언스플래시

바울과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관하여 동일한 목소리를 낸다.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 1:24)"라고 했다. 베드로는 "오 히러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벧전 4:13)"라고 말했다.

고난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우리에게 더욱 분명히 나타나시기(임재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은혜가 고난 중에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여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다.

C. 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고통은 귀머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사랑스러운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때, 귀를 막고 오직 몰아치는 고난의 소리와 자기 영혼의 탄식 소리에만 빠져있는 독자에게, 데이비드 폴리슨이 전하는 이 책의 메시지가 큰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구한다.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시는 선한 목자이시다. 고난의 소리, 내 영혼의 소리, 세상 사람의 소리가 아닌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동행하시는 목자를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길 바란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고통의 길에서 은혜를 만나다
데이비드 폴리슨 | 권명지 역
토기장이 | 144쪽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고통'과
그분의 '은혜'를
함께 엮어내시는가?

성경이 주는 약속을
현실에서 찾지 못해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숙련된 성경적 상담가
데이비드 폴리슨의
깊고 따뜻한 통찰!

고통 없는 삶은 없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첫날부터 모든 인생은 강건하면 팔십을 살아도, 그 연수의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다(시 90:10).

하나님께 돌아온 인생은 다른가?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하나님 언약의 축복을 받은 자였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한다(창 47:9). 의로운 자의 대명사 욥의 삶은 어떤가? 왜 의인의 삶에 고통이 이렇게 많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데이비드 폴리슨은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고 권면한다. "왜 당신이죠? 왜 생명의 주인이신 당신이 오신 건가요? 왜 이 악한 세상 속으로 들어오려 하시나요? 왜 이런 상실, 낙담, 고난, 슬픔, 죽음을 통과하려 하시나요? 이 모든 사람 중 하필 왜 저를 위해 이렇게 하시나요(138-139쪽)?"

폴리슨은 우리의 시선을 고난과 그것에 속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마태복음 28:19, 20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MATTHEW 28: 19, 20.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서성록, 한 점의 그림 | 미술에 대한 위그노의 시각

계속되는 고난에도 정체성 지켰던 위그노 예술인들

독특한 세라믹 유약 기술 발명해 창조 세계 아름다움과 경이 표현 굽히지 않는 신앙으로 박해 표적 비참함과 궁핍 속 하나님 부르심

위그노 신자 베르나르 팰리시(Bernard Palissy, 1510-1589)는 초기에 스테인드글라스 견습공으로 출발하여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아름답게 유약을 바른 솜씨 좋게 만들어진 도자기 찾잔"에 매료되어 그 비밀을 캐보기로 결심한 것이 그가 도예가가 된 배경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가 살던 마을에서는 도자기를 배울 수 없었으므로 그는 독학으로 "마치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듯 에나멜에 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수백 차례 실패의 고배를 마신 후에야 비로소 그만의 독특한 세라믹 유약 기술을 발명할 수 있었는데, 이것으로 그는 매우 섬세하고 복잡한 표현을 능숙하게 해낼 수 있게 되었다.

열정적인 도예가인 팰리시는 어류, 식물 및 파충류 등 자신의 작품에 사용할 실제 표본의 모형을 만들고 거기에 다양한 유약을 발라 이른바 '팰리시 도기'(Palissy ware)를 개발해냈다.

시골에서 성장한 덕에 팰리시는 들과 산, 연못에서 볼 수 있는 자연주의적 모티프를 집요한 작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이 점은 다른 도예가들의 작품에서는 흔치 않은, 이채로운 특징이다.

그의 작품들은 연못 모양을 취하고 있는데 그안에는 물고기, 개구리, 뱀, 도마뱀, 물 딱정벌레, 가재 및 다양한 조개껍질, 양치류 등 다양한 생명체들이 빼곡하게 운집해 있다. '작은 연못'이라고 할 만큼 온갖 생명체들을 작품에 응축해 놓은 것 같다.

통상 도자기라고 하면 '실용 도자기'를 연상하는 데 비해 그는 놀랄게도 눈으로 즐기는 '감상용 도자기'를 제작했고, 이런 시도는 도자기에 대한 통상적인 인식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것이었다.

그의 자연친화적인 작품은 결코 우연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의 도자기작품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예술적인 작품과 함께, 팰리시는 저술활동을 병행하기도 했다. 그는 자연사와 지질학에서부터 철학과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글을 썼다. 특히 그는 신앙과 과학의 관계에 관심이 많았고, 그의 많은 작품들은 둘 사이의 조화에 대한 그의 믿음을 반영한다.

그의 예술적 성공으로 까뜨린 모후와 앙리 3세의 총애를 받으며 '왕의 도예 발명가'라는 공식 직함까지 얻었다. 그러나 위그노와 가톨릭 교회 및 권력층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에, 그는 굽히지 않는 신앙으로 박해의 표적이 되고 말았다.

팰리시는 경건한 신앙과 공동체를 지키려는 교회 사역으로 인해 여러 차례 투옥되었고, 그때마다 큰 고통을 치러야 했다. 한 번은 그가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을 때 앙리 3세가 찾아와 개종하라고 회유하였지만 팰리시는 개혁 신앙을 지켰고, 바스티유 감옥에 수감되어 '비참함과 궁핍, 열악한 대우'(Pierre L'Estoile)를 받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조되던 시기에, 그는 굽히지 않는 신앙으로 박해의 표적이 되고 말았다. 팰리시는 경건한 신앙과 공동체를 지키려는 교회 사역으로 인해 여러 차례 투옥되었고, 그때마다 큰 고통을 치러야 했다. 한 번은 그가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을 때 앙리 3세가 찾아와 개종하라고 회유하였지만 팰리시는 개혁 신앙을 지켰고, 바스티유 감옥에 수감되어 '비참함과 궁핍, 열악한 대우'(Pierre L'Estoile)를 받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정교했던 판화가 아브라함 보스 짧은 기간 종교 자유 누리고 표현 예수 탄생과 성경 장면 묘사 즐겨 고전적 방식 쓰면서 선구자 역할

팰리시가 도예가였다면, 아브라함 보스(Abraham Bosse, 1604-1676)는 판화가였다. 약 1백 년의 갭이 있지만,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위그노 출신의 예술가였다는 점이다.

아브라함 보스는 위그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독일에서 이주한 재단사였는데, 그 때문인지 보스의 그림에서는 복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을 보면 그 시대의 풍속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다.

그가 낭트 직령이 폐기되기 전에 사망하면서 한정된 기간이나 종교적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 있을 것이다. 위그노 공동체의 존경받는 일원이었던 그는 팰리시와 마찬가지로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데 힘썼다. 특히 그는 일상생활을 정교하고 치밀한 표현력으로 묘사하였다.

많은 예화와 판화 작품에서 보스는 종교적인 장면과 상징들을 묘사했고, 특히 예수의 탄생과 성경의 장면들을 묘사하는 것을 좋아했다. <벽난로 앞의 지혜로운 처녀들>과 <잠자는 어리석은 처녀들>은 한 쌍을 이루는 작품으로, 그리스도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여인들과 잠을 잠지 못하고 졸거나 아예 깊은 잠에 빠진 여인들을 대조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전자의 지혜로운 여인들 뒤로 십자가와 성경책이 놓여 있는데 반해, 후자의 어리석은 여인들 뒤로는 화려한 장신구들이 놓여 있어 이들의 평소 생활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자세로 그 날을 준비해야 하는지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베르나르 팰리시, 세라믹 도자기, 16세기 중반.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으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눅 12:35-36)."

<벽난로 앞의 지혜로운 처녀들> 주인공들은 주님 말씀을 묵상하거나 혹은 기도하면서 주인이 오실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주위가 캄캄한 것으로 미루어 깊은 밤중임을 알 수 있으며,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가 성경 본문의 '등불'을 대신하고 있다. 그에 반해 <잠자는 어리석은 처녀들>에서는 꺼져가는 불길 속에 여인들은 깊은 잠에 빠져 떨어져 있다.

보스의 예술적 스타일은 고전적 방식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화와 인그레이빙 분야의 선구자 중 한 명이기도 했다. 그는 특히 입체나 음영 표현에 용이한 크로스 해칭(cross-hatching) 기법을 애용하였는데, 이로 인해 섬세한 표현이나 회화적 깊이감 등 판화라는 매체의 특성을 잘 활용해 내고 있다.

위그노, 16-18C 다수 작품 남겨 직업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여겨 박해와 순교에도 재능 계발 힘써 공동체 투쟁에 대한 인식 제고도

박해와 순교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도 위그노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재능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 위그노 예술가들은 16-18세기 상당한 예술 작품을 남겼고, 그들의 공헌은 유럽 예술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위그노 가운데 재능 있는 예술가들이 많이 나온 것은 그들의 직업을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여겼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1536년) 초판에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든지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고 하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강조했다. 이 책을 읽었거나 들었던 사람들은 자신이 왜 세상에 왔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브라함 보스, 벽난로 앞의 지혜로운 처녀들, 예화, 26x33cm, 1635년경, 워싱턴의 내셔널 뮤지엄 오브 아트.

이런 가르침을 받은 위그노들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들의 확고한 정체성을 지킬 줄 알았다. 위그노 성도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이나 모임, 무대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이같은 성경적 인생관 위에 정초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위그노의 미술을 보는 시각은 의미심장하다. 그들이 겪은 삶은 너무나도 가혹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절망하거나 신앙의 유산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의 작품은 박해와 차별에 직면했던 위그노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위그노 예술가들은 그들의 작품을 통해 그들의 신앙을 기념하고, 위그노 공동체의 투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했다.



서성록 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Advertisement for NCA 사립학교 (New Covenant Academy). Features a large red 'A' logo with a student sitting on it. Text includes: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ow Enrolling IB PYP(K~5TH) • MYP(6TH~10TH) • DP(11TH~12TH)',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and a list of benefits like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It also lists achievements like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and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주안에교회 창립 70주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년간 모든 발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섭리 가운데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힘있게 열방으로 나아갑니다.

세미나 소개

예배 및
세미나 일정

7/21(금)
7/28(금)
7:45PM

7/22(토)
7/29(토)
6AM & 7:30-
11:30AM

7/23(주일)
7/30(주일)
창립감사예배
8AM, 11AM

< 창립 10주년 기념 선교 세미나 >

“ 창립 10주년을 감사하며 글로벌 선교에
앞장서신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선교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주안에교회
최혁 담임목사



-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 세미나 문의: (818) 363-5887

/ 감사 /



박기호 교수
Fuller 선교 신학대학원 원로교수
GMS 원로선교사
(전)동서선교연구개발원 대표



앤드류 김 선교사
GCA 대표
글로벌 선교 컨설턴트



엄경섭 선교사
동서선교연구개발원 대표
아신대학교(ACTS) 대학원 연구전담교수
(전) 아시아선교협의회 사무총장